

광주·전남 ‘공항 통합’ 엇박자 속 무안공항 예산은 652억원 반영

통합 전제 예산 편성 ... 민간공항·군공항 문제 매듭 지어야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는 것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의 엇박자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시·도 협약’을 근거로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등 5개 사업에 652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공항 통합을 전제로 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통합이 결렬되면 예산 배정과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공항과의 통합 덕분에 항공 수요가 늘어 ‘무안공항 확장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 정부의 조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도가 맺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도 상생을 통해 광주 민간공항 뿐만 아니라 군 공항 문제까지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무안공항 통합을 대비해 오는 2023년까지 652억원을 들여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가 진행하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 등은 사업성(B/C=1.51)도 충분히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통합하고 부대 시설 등을 늘리면 무안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오는 2023년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현재 2800m에서 3200m로 400m를 연장할 계획이며, 이미 활주로 연장을 위한 부지(9만7000㎡·47억원) 매입을 마치고, 활주로 연장 기본설계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도 광주·무안공항 통합 대비 공항시설 개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관리동신축(93억1000만원), 여객터미널 시설 재배치(134억2000만원), 주차장 확보(40억2000만원), 장비고 신축 및 기존시설개량(54억1000만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리동신축사업은 공항 통합시 광주공항 사무공간의 이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며, 여객터미널 시설 재배치는 통합 대비 국내선·국제선 조정을 통한 적정용량 확보와 수속시설 추가배치 및 사용공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다. 또 주차장 확보도 통합에 대비해 늘어난 차량 수요를 예측해 진행되고, 장비고 신축도 통합에 따른 장비 추가를 예상해 계획됐다.

이처럼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잇따라 무안공항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도가 공항 통합에 동의해 국가계획인 ‘제4·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20)’의 ‘지자체 간 합의가 되면 이전한다’는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를 토대로 항공정책 최상위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등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올 1월 3일 확정고시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무안공항 확장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일부 사업이 추진되면서 ‘광주·전남의 광주 민간공항 이전 및 전남도의 군 공항 이전 협조’를 명시한 지난 2018년 시·도간 협약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고, 시도의 감정적인 대응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협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섰고, 광주시의원들은 전남지역 후보자들의 반대로 군 공항 이전의 진척이 없어도 전남도와 맺은 협약대로 2021년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조건 없는 이전·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공항 통합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반영됐는데 통합이 결렬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원활한 예산 지원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책임전가로 면피할 생각을 버리고 상생의 자세로 시도민의 뜻을 존중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2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정책협의회를 마친 김영록 전남지사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배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의힘 “호남에 많은 빛 ... 적극 돕겠다”

광주시·전남도, 국민의힘과 광주시청서 예산정책협의회
군공항이전·5·18특별법·경전선·전남권 의대 등 지원 요청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모처럼 광주를 찾은 제1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등 주요 지역현안과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호남에 많은 빛을 주고 있다.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시장은 27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과 군공항이전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두 가지 법안의 통과에 적극 나서야만 광주시민들도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믿을 것”이라며 “5·18관련특별법과 군공항이전 특별법은 광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정국회에서도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 지원과 인공지능산업육성 및 데이터

처리 특별법(안) 마련, 광주의료원 설립,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한 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설립, 경제자유구역 첨단기술·제품 및 증점유치업종 법인세 감면 등 주요 현안 사업의 협조를 건의했다.

이어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남도와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김영록 지사는 내년 지역 현안사업 국고예산 반영과 입법 등 정책지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예산지원 사업과 관련해선 전남도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전철 건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천사대교 날개(보행로) 달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국회 심의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1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정책 현안과 관련해선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과 한전공대·여순사건·지방소멸 위기지역 관련 3개의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코로나 19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30년간 이어진 도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한전공대를 글로벌 나주혁신도시에 세계 톱10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의 카이스트와 과기원처럼 한전공대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정부의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된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의 여수 개최에도 당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부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제 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

D' Revolution(디-레볼루션 : 디자인 혁명)

내년 9월 2일~10월 31일

내년 9월 개막하는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가 ‘D' Revolution(디-레볼루션 : 디자인 혁명)’으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16면〉

(제)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위성호)은 27일 김현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이 참여한 설명회에서 주제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전시주제인 D' Revolution은 ‘Design(디자인)’과 ‘Revolution(레볼루션)’의 합성어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의 물결 속에서 미래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일상의 혁명(Day Revolution)’, 정보의 혁명(Data Revolution) 등을 컨셉 삼아 치유형 전시, 네트워크형 전시, 체험형 전시로 연출되는 주제전을 비롯해 디자인 이슈를

보여주는 해외작가 작품전과 폴란드 특별전, 지역산업관, 디자인 체험프로그램, 학술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한편,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내년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60일간 광주 비엔날레전사관, 아시아 문화전당 등 광주지역 일원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자산동 주택조합 2차 피해 우려 ▶6면

광주 사학법인 교사 자체 채용 철회 ▶7면

손흥민 시즌 8호 골 EPL 1위 ▶18면

2020

과 학 문 화 주 간

지 스톨

11. 02.(월) ~ 11. 27.(금)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		
11. 03. 화 19:30	문화행사 문화신포니에타와 함께하는 “교향곡의 밤”	
11. 03. 화 19:00	Start-Up Night	
11. 04. 수 13:00	GIST CEO Forum	
11. 05. 목 19:00	지스트 히트싱어 ※ 교원과 함께하는 스페셜무대 포함	
11. 03. 화 ~ 05. 목 13:30	찾아가는 지스트 과학교실 갈색지방과 다이어트(의생명/오창명 교수) 아동을 밝히는 등대, 블랙홀(feat.노벨상) (물리/김근영 교수) 몸속을 돌아다니고 치료하는 나노로봇 (융기/윤정원 교수)	
11. 02. 월 ~ 06. 금	지스트 초등학생 온라인 과학 그림 대회 주제: 꿈꾸는 미래의 과학기술	
	대표 연구성과 소개	
11. 13. 금 18:00	온라인 외국인 문화의 밤 GIST Global Chef's Kitchen	
11. 13. 금 ~ 14. 토	AI & IoT 메이커톤 대회	
11. 23. 월 ~ 27. 금	온라인 학생 축제 온라인 게임대회 온라인 토크 콘서트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문의처 대외협력팀 TEL 062)715-2025 • E-MAIL pa@gist.ac.kr • www.gist.ac.kr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GIST_YOUTUB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IST.SNS>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IST.SNS/> •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mNxmtK

sc.gist.ac.kr

지스트 온라인 과학문화주간